



논문작성 프로그램

Scholar's Aid

논문작성·연구용 프로그램인 비블리오그래픽(Bibliographic) SW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보급되기 시작했다. 정형화된 레퍼런스 스타일(Output Style)을 사용하던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어 지금은 논문작성 표준화와 학술자료의 온라인 DB화 등 연구 환경의 변화로 전 세계에서 연구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프로그램은 태생부터 논문에 참고문헌을 인용 시 Output Style 을 만들어 주는 목적으로 개발되고, 현재까지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방대한 노트자료를 관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미국에서 공부 중이던 한국인 학자가 이 점에 착안하여 Scholar's Aid가 개발되었다. '출처의 연동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이 최초로 개발된 것이다. 이것은 학술연구 프로그램의 진보를 알린 혁신적인 일이었으며,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일이었다. 기존의 Bibliographic SW와 다르다는 의미의 레퍼런스 프로세서(Reference Processor)라는 별칭이 붙었다.

다음은 Scholar's Aid에 대한 사용 평가이다.

“연구자들은 많은 양의 노트를 유지해야 하고 그들의 연구를 위해 이들 노트를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디자인된 프로그램이 있다. 일반적인 참고문헌관련 기능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관련된 노트를 운용할 수 있는 또 하나를 가진 두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는 Scholar's Aid 가 그것이다.” (세계미래학회 포럼)

세계 어느 나라도 기존의 다국적 기업제품들에 필적할 만한 자국의 논문작성·연구용 프로그램을 가진 나라가 없다.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Scholar's Aid라는 자국 브랜드로 한국의 긍지를 높이게 되었다.

특히 한국 학술 분야에 있어 의미가 크다. 한국의 학술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인 부분인 '한국 상황에 맞는 연구툴 기능의 활용'이 가능해졌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Scholar's Aid는 한국 학술발전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외국산 제품들은 국책 연구원과 국공립 대학을 비롯하여 수많은 한국의 연구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아래아한글 문서와의 호환 기능이나 국내 논문 템플릿 이용 기능을 그동안 해결해 줄 수 없었다. 그러나 Scholar's Aid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는 연구용 툴을 이용해 논문 작성 시에 아래아한글 문서로도 논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대학, 저널, 학회의 Output Style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아래아한글을 이용하여 국내 학술기관의 투고규정을 적용한 원고 템플릿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부가적인 가치는 막대하다. 국내에서도 논문작성의 표준화가 가능해졌다. 한국의 연구자 누구나 손쉽게 해외 저널의 원고 템플릿을 이용하므로 해외 저널에의 논문 등재가 활발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구윤리 면에서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학술기관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악습처럼 되어버린 표절과 대필을 근절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고나 감시, 이를 위해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과업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네가티브적 방안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못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구자들이 표절이나 대필의 유혹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도록 학술문서 작성 프로세스를 쉽고 편리하게 정형화, 자동화, 시스템화하는 일이다.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최근의 연구환경에서 정형화, 자동화, 시스템화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제 학술콘텐츠는 웹DB, 웹저널, 디지털

라이브러리 등의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제공된다. 이 학술자료를 입수해서 연구자 개인 PC에 DB화시켜 저장하는 일은 연구툴을 이용해 자동화된다. 연구툴은 저장된 자료를 각 학회, 저널, 대학, 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Output Style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고 문서에 자동으로 인용 삽입해 준다. 학술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워드나 엑셀에 저장해 두거나 학술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자료를 찾고 붙이고 편집하거나, 레퍼런스를 달 때 연구자가 아는 식이나 Style 매뉴얼을 보고 일일이 편집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자료입수와 관리, 문서에 인용을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해결한다. 따라서 작업의 정밀함은 물론 정형화된 아웃풋으로 학술문서의 표준화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표준화를 기반으로 연구자간 교류는 세계화하고 있다.

특히 Scholar's Aid는 구조적으로 본문과 출처를 링크시켜서 같이 관리하게 해주므로 인용문과 참고 자료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습관화해준다. 문서에 인용 시에도 버튼을 한번 누르는 것으로 본문과 함께 링크된 출처를 동시에 인용 삽입해 주므로 구조적으로 출처를 다는 습관을 만들어준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에서도 과제를 내 줄 때 출처를 밝히도록 습관을 들이는 연습을 시키는데, 이를 위해 Scholar's Aid를 공부툴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Scholar's Aid는 문서 작업의 질적 향상과 정밀함, 학술 문서의 표준화, 연구활동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있어서 학술문서 작성의 정형화, 자동화, 시스템화가 절대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연구윤리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과 툴을 마련해 주었다.